

## 전민일보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08  
면 지역

### 군산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 24억원 확보

군산시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 및 농업 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등 2건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고령화·농촌노임 상승 등 농촌인력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 중소기업농·청년창업농 및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농촌 단기인력수급, 농가 인력난 해결 등을 위해 공모를 신청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금 1억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설을 서두를 예정이다. 대야면 옛 초산부대 내에 지상 2층 규모로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내부 시설은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사무실, 휴게공간, 공용주방, 숙소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복합시설을 조성 계획이다.

해마다 군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는 2022년 7명, 2023년 28명, 2024년 88명, 2025년 250명(예정)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원예시설농가, 대규모 식량작물농가 위주 농가상주형(5개월)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해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인권보장을 통한 농업 고용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 전북중앙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010  
면 지역

### 군산시, 농촌인력증개센터 공모 선정

군산시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 및 농업 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등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시는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지원금 1억,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24억을 확보했다.

시는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설을 서두를 예정이다.

기숙사로 들어설 곳은 대야면 옛 초산부대 내로 지상 2층 규모로 4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내부에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사무실, 휴게공간, 공용주방, 숙소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복합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선정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인권 보장을 통한 농업 고용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